

원효 『기신론해동소』에 나타난 원음(圓音)의 현대적 이해에 관한 연구

김원명
한국외국어대학교

I. 들어가는 말

우리는 말과 글이 본격적으로 일치하기 시작한 지 60여년이 지났다. 우리 자신의 말과 글은 우리 삶 속에서 느끼는 마음과 생각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개성적이며 독창적인 표현을 풍부하게 해준다. 한국 사람이 한국말과 글을 쓰며 아끼고 보살피는 것은 우리 자신의 근원의 맛을 음미하는 것이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글을 쓰는 것은 한국말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한국말의 힘을 키우는 것은 한국 사람 자신의 근원을 키우고 진정한 한국 사람이 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소리는 ‘있음’의 부름을 듣고 응답하는 가장 자연스럽게 근원적

인 소리다.¹⁾

언어학의 세계적 석학인 ‘데이비드 크리스탈(David Crystal)’ 교수(영국 웨일즈대)는 “언어의 힘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그 언어 사용자들의 힘”이라고 말한다. 그 ‘힘’을 기르기 위해 세계의 언어들은 지금 전쟁 중이다. 영어, 불어, 일어, 중국어는 치열한 경쟁중이다.²⁾ 우리는 자국 언어의 힘을 기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며 애쓰는 세계 주요언어들 가운데서 힘을 키우기는커녕 스스로 그 힘 키우기를 포기하고 영어 사용자가 되고 우리 한국어의 힘을 약화시키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나는 거의 1400년 전 한국의 고대 말을 쓰며 한국의 고대 전통 속에서 인도로부터 중국을 거쳐 들어온 고등종교 불교를 통해 자신의 지혜를 뛰어나게 펼쳐 보인 원효의 원음(圓音)을 연구하고자 한다. 나는 양(梁)대의 진제(眞諦, Paramārtha, 499-569)가 한자문명권에 한문으로 번역해 소개한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Mahāyānaśraddhotpāda*)에 나온 원음(圓音)에 대하여 깊이 숙고한 원효의 사색을 오늘날 우리의 말로 이해하고 풀어서 좀 더 잘 이해하고 그 지혜를 느껴보고자 한다. 고대 한국에서 원음에 대해 깊이 사색해 한문으로 표현한 글을 현대 한국말과 글로 더 자세히 깊고 넓게 풀어 더 잘 이해해 한국말로 하는 사색의 힘을 키우는 것은 우리 자신의

1) 김원명, 「서양철학의 끝과 한국사람의 삶」, 『외대철학』 제6집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2000), 26-27쪽 참조; M. Heidegger, *Zur Sache des Denkens* (Tuebingen: Niemeyer, 1969), 7쪽 참조.

2) 2004년 10월 10일 밤 8시-9시 방영한 <KBS특별기획 위대한 여정 한국어 제2부 말은 민족을 낳고> 참조; 2004년 10월 17일 밤 8시-9시 방영한 <KBS특별기획 위대한 여정 한국어 제3부 말의 길-한국어의 선택> 참조.

근원을 키우고 진정한 한국 사람이 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원음(圓音)은 진제가 550년 번역한 이후 한자문명권에서 한자로 불교를 이해한 한문문자시대의 독특한 한자식 이해의 표현이다. 원음은 진제 『대승기신론』 역본(550)에 단 한번 나오고 있다.³⁾ 이후 당(唐)대의 실차난타(實叉難陀, Siksānanda, 652-710)가 700년에 번역하기 시작한 신역본에서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일음(一音)으로 나온다.⁴⁾ 원효는 원음(圓音)에 대해 깊이 사색하고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박휘근(朴輝根, 1946-)은 원음(圓音)이 오늘날 서양에 소개되고 있는 『대승기신론』 번역본들에서도 전혀 주목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원음(圓音)을 서양문명의 로고스(λογος)와 비교해 주목하며 한국말로 ‘등근 소리’라고 해석했다.⁵⁾ 김호성은 「일음교(一音敎)와 자기철학(自己哲學)의 글쓰기」

3) 馬鳴, 『대승기신론』, 진제 역(『대정장』 32), 575c10에 원음(圓音)이 한번 나온다.

4) 마명 저, 『대승기신론』, 실차난타 역(대정장 32), 584b15에 일음(一音)이 한 번 나온다.

5) Yoshito S. Hakeda, *The Awakening of Faith*, Attributed to Asvaghosh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7), 26쪽 참조; D. T. Suzuki, *Açvaghosha's Discourse on the Awakening of Faith to the Mahayana* (Chicago: Open Court, 1900), 38-41, 51쪽 참조; Jean Cools, *Mahayana-Sraddhotpada-Sastra*, traduction et notes d'après la version de D. T. Suzuki (Bruxelles: Institut Belge des Hautes Etudes Bouddhiques, 1971), VII-VIII 참조; P. Demiéville, "Sur l'authenticité du Ta Tch'ing K'i Sin Louen," *Bulletin de la Maison Franco-Japonaise* 2/2 (Tokyo: Maison franco-japonaise, 1929), 1-78쪽 참조; 이기영, 『원효사상』, 6판 (서울: 흥법원, 1993), 13-27쪽 참조; 박휘근, 『한국인의 존재지혜 II-「원효의 원음」과 한국인의 존재지혜』 (미출판), 8장 「「원효의 원음(圓音)」과 한국인의 존재지혜」 참조; 박휘근, 『원음(圓音)과 로고스(λογος)의 영원한 무관계(無關係)에 관하여』 (미출판) 참조.

를 통해, 불교의 반복사관(反復史觀) 관점에서 해석자가 그때마다 컨텍스트 속에서 해석자 중심의 자기철학 글쓰기를 해야 한다고 한다. 이때 반복사관과 관련하여 원음(原音)으로서의 일음(一音)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김호성은 원음(原音)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면서도, 원음(圓音)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⁶⁾

본 논문은 우선 원음(原音)과 원음(圓音)의 다름과 같음을 몇 가지 불교전적에서 그때마다 다르면서 다르지 않게 나타나는 언설들의 이해를 통해 어떻게 해석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원음(圓音)과 일음(一音)이 몇 가지 불교전적에 나타난 바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특히 원효가 많은 분량을 할애해 연구하고 있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원음(圓音)이 무음(無音)과 중음(衆音)으로까지 해석되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그런 후 마지막으로 원음에 대한 현대적인 입말로 해석하고 이를 글말로도 쓸 것을 제안하여 현대적 이해와 해석을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표는 원효 『기신론해동소』의 원음에 대한 이해와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현대적 입말과 글말로의 해석이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나 자신과 독자들과의 존재론적 지혜를 공유하면서도 보편적으로 깊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표와 그 범위의 한계로, 동아시아 불교에서 교판적으로 이해되어 온 ‘원음’에 대한 고민은 담겨 있지 않을 것이며, 교판을

6) 김호성, 「一音敎와 自己哲學의 글쓰기」, 『동서철학연구』 제42호 (大田: 韓國東西哲學研究會, 2006) 참조.

중심으로 한 ‘원음’의 이해도 거의 인용되지 않을 것이다. 또 『기신론』 이외의 한역 경론들에서 ‘원음’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분석도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고민과 인용 그리고 자료분석은 원효가 동아시아 불교 사유전통에서 형성된 ‘원음’ 이해의 차용과 자기적 전개라는 면에서의 의미를 드러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차후 연구 과제로 남기겠다.

원효가 깊이 사색한 원음에 대해 현재의 입말과 글말로 이해하는 것은 철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었던 ‘진리는 하나인가 여럿인가’와 같은 문제라든가, 서양의 중세철학 시기의 보편논쟁과 같은 것을 이해하는 것과 같은 존재론적 깊이를 갖는다. 특히 오늘날 원효의 존재론은 언어철학 등과 관련한 현대철학적 논의에 시사해주는 많은 단초들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아직도 많은 이해와 연구를 기다리는 원효 철학에 대한 현대 입말로 의 이해와 입말의 글말화라는 목표를 가진다. 따라서 나는 본 연구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에서 진리의 소리를 함께 듣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대한 자각을 통해, 원효로부터 거의 1350여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한국말을 쓰고 있는 현대 한국인들이 ‘원음(圓音)’을 좀 더 잘 알아들을 가능성을 열어 보여 철학의 본래 목적인 현재 삶의 지혜를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원음(原音)과 원음(圓音)

원음(原音)은 법(法)이다.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연

기법이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또한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여래가 세상에 나든 안나든 법계는 늘 있는 것이다. 여래께서 이 법을 스스로 깨닫고 등정각을 이루어,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연설을 하셔서 열어 나타내 보이셨다.’ 이른 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고 하셨다.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내지 괴로움이 있고, 무명이 멀하므로 행이 멀하고 내지 괴로움이 멀한다’고 하셨다.”⁷⁾

법(法, dhatu)은 본래 소리 즉 원음(原音)으로서 여래가 세상에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확정되어 있으며, 확립되어 있으며,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원음은 궁극적 경험의 법칙으로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떠나 있지 않다. 언제 어디서나 두루 있는 법을 소리로 나타낸 것이 원래 소리, 원음(原音)이다. 원래 소리가 부처를 통해 드러나고 그 원래 소리 원음(原音)은 시대마다 다양하게 드러나지만 한 소리다. 그래서 일음(一音)이다. 이에 따르면, 초기 경전, 대승 경전, 심지어 위경(僞經) 그리고 선어록 등과 같은 다양한 성격의 불교전적들은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한 결과 즉 대기설법(對機說法)의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김호성은 일음교(一音敎)를 주장하고 그것을 공식화 했다. 그의 ‘일음교(一音敎) 공식’은 $S_n = X_n + C_n$ 이다. S_n 은 경전(S)들 중 하나(n)이고, X_n 은 원음(原音)(X)에 대한 하나의 해석(n)이고, C_n 은

7) 『雜阿含經』 권12 (『대정장』 2, 85b). “佛告比丘。緣起法者。非我所作。亦非餘人作。然彼如來出世及未出世。法界常住。彼如來自覺此法。成等正覺。爲諸衆生分別演說。開發顯示。所謂此有故彼有。此起故彼起。謂緣無明行。乃至純大苦聚集。無明滅故行滅。乃至純大苦聚滅”

컨텍스트(C)들 중 하나(n)이다. 예를 들어 초기불교 아함/니카야(Sn)에서는 연기(緣起)·무아(無我)(Xn)로, 반야부 경전(Sn)에서는 공(空)(Xn)으로, 유가유식의 문헌(Sn)에서는 식(識)(Xn)으로 그 시대마다 해석자의 컨텍스트(Cn)에 따라서 원음(原音)이 다양하게 해석되었다는 것이다.⁸⁾

원음(原音)이 초기불교 아함/니카야에서는 연기(緣起)·무아(無我)로 나타나며, 반야부 경전에서는 공(空)으로도 나타나며, 유가유식의 문헌에서는 식(識)으로도 나타나고, 『진심직설(眞心直說)』과 같은 글에서는 실제적 측면에서 법신(法身)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인격화의 측면에서 법신불(法身佛)로도 나타난다.

이처럼 본래 소리, 원음(原音)은 언제 어디서나 깨달을 주체를 기다리며 깨달은 주체의 그때마다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김호성이 말하는 원래 소리, 원음(原音)은 불경 여러 곳에서 부처님의 언설을 통해 나타난다.

김호성은 ‘지금-여기서’ 행하는 순간 순간 우리의 컨텍스트에 입각한 해석학적 자기철학 글쓰기는 경전의 무게로 더 이상 구속될 수 없다고 본다. 자기철학 글쓰기가 새로운 결집의 의미를 가지며 심지어 경전의 권위와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는 것이다. “해석자는 더 이상 해석학적 상상력과 해석의 자유를 구속하는 경전의 무거움”에 짓눌릴 필요가 없게 된다.

그는 원효(元曉, 617-686)와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 1158-1210)이 바로 이런 관점에서 회통론(會通論)을 주장한 것으

8) 김호성, 앞의 글, 62-63 참조.

로 본다. 원효는 “모든 다른 사람의 뜻은 모두 부처님의 뜻이며, 백가의 학설이 모두 옳지 않음이 없고, 팔만 가지 법문이 모두 가히 이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⁹⁾라고 하고, 지눌은 “부처의 입과 조사의 마음이 반드시 서로 틀린 것이 아니니, 어찌 근원을 궁구하지 않고서 제각기 익힌 바에 안주하면서 헛되이 쟁론을 일으켜 하늘의 해를 죽이는가”¹⁰⁾라고 한다.

그러나 이때 간과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해석학적 상상력과 해석의 자유가 “마치 소라로 바닷물을 따르고, 대롱으로 하늘을 엿보는 것과 같을 뿐”이라고 지적받아서는 안 된다.¹¹⁾ 소라로 뜬 바닷물은 단지 소라로 뜬 바닷물로 보아야 하고, 바닷물 전체를 소라로 뜬 바닷물로만 한정해선 안 된다. 또 하늘을 대롱으로 보고, 즉 부분적으로만 보고 전체 하늘을 대롱으로 보인 하늘로만 한정해서도 안 된다.

원음(原音)을 바닷물로 비유하면, 짠맛은 원음(圓音)으로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바닷물을 맛보아도 늘 짠 맛이 있다. 그러나 어떤 바닷물도 그 바다 전체는 아니다.

그런 면에서 “해석자는 더 이상 해석학적 상상력과 해석의 자유를 구속하는 경전의 무거움”에 짓눌릴 필요가 없다는 김호성의 입장을 나는 이렇게 바꾸어 본다. ‘해석자의 해석학적 상상력의 한계와 해석의 자유는 구속될 수 없으면서 늘 구속될 수밖에 없다.’ 해석자의 해

9) 원효, 『菩薩戒本持犯要記』(『한불전』 1, 583a). “一切他義 咸是佛義 百家之說 無所不是 八萬法門 皆可入理”

10) 지눌, 『華嚴論節要』 序 (보조사상연구원 엮음, 『보조전서』, 서울: 불일출판사, 1989), 174쪽. “佛祖心口 必不相違 豈可不窮根源 而各安所習 妄興諍論 虛喪天日耶”

11) 원효, 『涅槃宗要』(『한불전』 1, 547a). “是猶以螺酌海用管闢天者耳”

석학적 상상력의 자유의 자유스러움은 늘 그 자유를 구속하는 경전의 무거움으로부터 무게를 끊임없이 느낄 때만 의미가 있다. 즉 해석자의 해석학적 상상력과 그 자유로부터 길어져 나온 Sn은 그 자체로 불변의 원음(原音) S가 될 수 없는 한계를 늘 지닌다. 그리고 언제나 컨텍스트적 맥락 속에서만 나오게 되니 늘 Sn이다. 'Sn에서 Cn을 비판·배제하는 작업으로 곧 Xn을 찾아' 남는 것이 김호성이 말하는 불교의 원음(原音)이고, 그것을 김호성은 '텍스트'라고 부른다.¹²⁾

원음(原音)은 여래가 세상에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확정·확립·결정되어 있다. 그러나 불교의 모든 전적(典籍)들은 컨텍스트적인 맥락 속에서의 원음(原音)이 해석된 것으로서 다 다르다는 측면에서 원음(原音) 자체는 아니다.¹³⁾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해석은 컨텍스트적으로 그때마다 늘 구속적이다. 그러나 늘 짠 맛을 간직하고 있다면, 원효에 따르면, 늘 불의(佛意)를 담고 있어 원음(圓音)이 되고, 원음(圓音)은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법을 각각 똑같이 알아들으니 다 같은 소리, 한소리 일음(一音)이며 동시에 그 소리를 각각 알아듣는 중생들의 수만㎞의 못소리 즉 중음(衆音)이 된다. 불교의 모든 전적(典籍)들에서는 해석자의 해석이 해석자의 컨텍스트적 맥락 속에서 제한적으로 다양하게 펼쳐지지만[衆] 늘 불의(佛意)를 간직한 근원의 소리, 본래의 소리 원음(原音) S를 간직한다면 자유로우면서도 하나를 잃지 않으며 펼쳐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늘 새롭고 자유롭다. 또 그때마다 동

12) 김호성, 앞의 글, 71쪽 참조.

13) 같은 글, 62-63쪽 각주 22 참조.

시에 늘 오래되었으며 구속적이다. 컨텍스트적으로 해석된 자유로운 소리가 참 스스로로부터 우리나라오는 소리라면 늘 새로우면서도 늘 오래된 소리일 수밖에 없다. 늘 새로운 소리라는 것은 불교전적들의 다양한 해석들이 그때마다 같지 않은 측면을 말하는 것이요, 늘 오래된 소리라는 것은 불교전적들의 다양한 해석들이 그때마다 같지 않을 지라도 동일한 근원의 다르지 않은 측면을 말하는 것이다.

Ⅲ. 원음(圓音)과 일음(一音)

원효도 인용한 구마라집(鳩摩羅什, Kumarajiva, 344~413)이 번역한 『유마경(維摩詰所說經)』의 다음 계송에 일음이 나온다.

부처님께서는 일음으로 법을 설하셨으나
중생들은 그 부류에 따라 각각 이해하노라.
모두가 세존께서는 그 말씀을 같다고 하니
이는 곧 신령스런 힘의 함께 하지 않는 법일세.

부처님께서는 일음으로 법을 설하셨으나
중생들이 각각 이해한 바에 따르네.
두루 받아들여서 실행하여 그 이익을 얻으니
이는 곧 신령스런 힘의 함께 하지 않는 법일세.¹⁴⁾

14) 구마라집 역, 『維摩詰所說經』(일명 不可思議解脫) (『대정장』 14, 538a). “佛以一音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인도 대승불교 후기에 아슈바고사(Asvaghōṣa) 즉 마명(馬鳴, 100?-160?)이 짓고 수나라 개황(開皇) 연간(550)에 진제(眞諦)가 번역한 『대승기신론』에 원음(圓音)이 나온다.

경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법이 있긴 하나 중생의 근기와 행동이 같지 않으며, 받아서 이해하는 연(緣)도 다르다. 이른 바 여래가 세상에 계실 적에는 중생의 근기가 예리하고 설법하는 사람도 색(色)·심(心)의 업이 수승하여 원음(圓音)으로 한 번 연설하매 다른 종류의 중생들이 똑같이 이해하므로 논을 필요로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여래가 돌아가신 후에는 혹 어떤 중생은 자력으로 널리 듣고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혹 어떤 중생은 자력으로 적게 듣고 많이 아는 이가 있으며, 혹 어떤 중생은 자심력(自心力)이 없어서 광론(廣論)에 의하여 이해하게 되는 사람도 있으며, 또한 어떤 중생은 다시 광론의 글이 많음을 번거롭게 여겨 마음으로 총지(總持)와 같이 글의 분량이 적으면서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하여 그런 것을 잘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¹⁵⁾

중국불교를 학문적으로 확립한 사람으로 알려진 정영사(淨影寺) 혜

解 普得受行獲其利 斯則神力不共法”

說法 衆生隨類各得解 皆謂世尊同其語 斯則神力不共法 佛以一音演說法 衆生各各隨所
15) 마명, 『大乘起信論』, 진제 역 (『대정장』 32, 575c). “修多羅中雖有此法。以衆生根行不等受解緣別。所謂如來在世衆生利根。能說之人色心業勝。圓音一演異類等解。則不須論。若如來滅後。或有衆生能以自力廣聞而取解者。或有衆生亦以自力少聞而多解者。或有衆生無自心力因於廣論而得解者。自有衆生復以廣論文多爲煩。心樂總持少文而攝多義能取解者”; 은정희 역주,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별기』, 4쇄 (서울: 일지사, 1992), 68쪽 번역 인용.

원(慧遠, 334-416)은 『대승기신론의소』(大乘起信論義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원음(圓音)으로 한 번 연설해 다른 종류의 중생들이 똑같이 이해한다는 것은 구업(口業)이다. 여래의 일음(一音)은 대·소승을 아울러 펼쳐내는 것이니, 그 이해 수준에 따라 똑 같이 이해하고 그 이해 수준의 말에 차이가 없다. 이는 곧 부처님이 허투로 법을 설한 것이 아니다. 『화엄경』에서 말하기를, ‘여래가 일음으로 법을 설하니 중생이 그 이해하는 능력에 따라 각각 이해한다’고 하였다.¹⁶⁾

또 전체적으로 원효의 『기신론소』(起信論疏)의 분과(分科)와 어구 해석을 거의 답습하면서 『대승기신론의기』(大乘起信論義記)를 지은¹⁷⁾ 화엄종 제3조 현수(賢首) 법장(法藏, 643-712)은 화엄가의 입장에서 여래께서 일음(一音)으로 일체법을 설하셨다는 것과 여래가 일체음(一切音)과 같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며 각각 『화엄경』을 근거로 간단히 원음을 설명한다. 이는 아래 비교해 보면 알지만 원효의 설명 일부를 거의 요약한 것이다.

일음과 원음 둘이 있다. 처음에 여래는 일음으로 일체법을 설하셨는데, 완

16) 혜원, 『大乘起信論義疏』(『대정장』 44, 178b). “言圓音一演異類等解者是口業也。如來一音大小並陳。隨機等解。不差機說。此則佛爲不虛說法。華嚴云。如來一音演說法。衆生隨力各得解也。”

17) 은정희, 「원효의 삼세 아라야식설의 창안」, 예문동양사상연구원·고영섭 편저, 『원효』(서울: 예문서원, 2002), 113쪽 참조.

전히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원음이라 이름하였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여래의 한 말씀 가운데에 그 하시는 말씀이 (그 뜻이) 무한하면서 불경의 바다에 합치한다’고 하였다. 둘째로 여래는 일체음과 같다. 그러므로 원음이라 한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일체중생의 말하는 법을 여래가 한 말로 연설하여 남음이 없다.’ 이는 일체음이 곧 일음이기 때문에 일음이라고 하고, 일음이 곧 일체음이기 때문에 원음이라 하는 것이다. 한 마디 한 마디 말이 중생계에 두루 다하고 그 음운(音韻)이 항상 잡란하지 아니하다. 만약에 소리가 두루 하지 않는다면 곧 음(音)은 운(韻)이 아니다. 만약에 고루 같고 두루하기 때문에 그 운곡(韻曲)을 잃는다면 곧 두루하지만 음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제 곡(曲)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고루 같고 두루하고 두루함을 동요시키지 않으면서도 운(韻)이 잘 맞는다. 이는 여래의 원음이며 심식으로 사랑할 경계가 아니다.¹⁸⁾

법장(法藏)의 다음을 이어 화엄종 제4조가 된 청량(淸涼) 징관(澄觀, 738-839)은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에서 일음교(一音教), 일원음(一圓音)을 말하며 북위(北魏)의 보리류지(菩提流之, 菩提留支, 道希 : Bodhiruci, 535~?)와 요진(姚秦)의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의 그 해석 차이를 소개한다. 징관에 따르

18) 법장, 『大乘起信論義記』(『대정장』 44, 249c-250a). “一音及圓音者有二。初如來一音說一切法。無不顯了。故名圓音。華嚴云。如來於一語言中演說無邊契經海。二如來同一切音。故云圓音。華嚴云。一切衆生語言法一言演說盡無餘。以一切音卽一音故。云一音。一音卽一切音。故云圓音。一一語音遍窮衆生界。而其音韻恒不雜亂。若音不遍。則音非圓。若由等遍失其韻曲。則是圓非音。今不壞曲而等遍。不動遍而善韻。此是如來圓音。非是心識思量境界耳”

면, 보리류지의 입장은 부처님 말씀이 일음(一音)으로서 다름[異]을 다 갖추고 있어 중생들에게 모두 알리는 것이고, 구마라집의 입장은 중생이 다 다르며 스스로 근기에 따라 부처님의 일원음(一圓音)의 한 뜻을 각각 얻는다는 것이다. 보리류지는 ‘일음교(一音教)’를 제창하여 부처님 가르침은 모두 일음(一音)·일미(一味)·일우(一雨)라고 주장하였다.

첫번째, 일음교를 세우니 여래 일대의 가르침을 이르니, 일음을 여의지 않는다. 그러나 두 논사가 있다. 첫째 후위의 보리류지가 말하기를, ‘여래께서 일음으로 동시에 모두 알리니 대·소승이 나란히 펼쳐진다’고 했다. 둘째 요진의 구마라집 법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일원음은 평등하여 둘이 없으니 생각 없음으로 두루 응하여, 근기에 따라 들어 저절로 갈라진다. 부처님 말씀의 소리가 대·소승에 펼쳐지는 것을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유마경』에 이르기를, ‘부처님이 일음으로 법을 연설하니 중생이 각각 이해한 바를 따른다’고 하였다. 위의 두 분 중 처음 분은 부처님 소리가 다르게 갖추어져 있고, 나중 분은 다름이 스스로 그 근기에 있으니, 각각 원음의 한 뜻을 얻어서 모두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 되니 나눌 수 없는 뜻이다.¹⁹⁾

19) 징관, 『大方廣佛華嚴經疏』(『대정장』 35, 508a-b). “一立一音教。謂如來一代之教。不離一音。然有二師。一後魏菩提流支云。如來一音同時報萬。大小並陳。二姚秦羅什法師云。佛一圓音平等無二。無思普應。機聞自殊。非謂言音本陳大小。故維摩經云。佛以一音演說法。衆生各各隨所解。上之二師。初則佛音具異。後則異自在機。各得圓音一義。然並爲教本。不分之意耳”

지눌(知訥, 1158-1210)은 “첫째, 후위(後魏)의 보리류지는 일음교(一音敎)를 세웠다. 이른바 성스러운 가르침은 오직 여래의 일원음교(一圓音敎)인데, 다만 근기가 다름에 따른 것이었을 뿐이다.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음(一音)으로 법을 연설하니, 중생이 그 근기에 따라서 제각각 이해한다’라고 하였다”²⁰⁾고 요약하였다.

진제 역 『대승기신론』에 딱 한 번 나오는 원음(圓音)에 대해 원효(元曉, 617-686)는 그의 주석에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설명한다. 원효도 원음이 곧 일음이라 한다. 그리고 원음과 일음에 대한 여러 논사의 설명이 같지 않다고 하며 세 가지를 소개한다. 그 처음의 소개는 아래와 같다.

여기에서 ‘원음(圓音)’이라 말함은 곧 일음(一音)이니, 일음과 원음은 그 뜻이 어떠한가? 예부터 여러 논사의 설한 것이 같지 아니하니 어떤 논사는 설하기를, “여러 부처는 오직 제일의신(第一義身)이니, 영원히 만상(萬像)을 끊어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으나, 다만 중생의 근기를 따라 한량없는 형체와 소리를 현현(顯現)하신다. 이는 마치 빈 골짜기에 소리가 없으나 부름을 따라 메아리가 나오는 것과 같다. 그러니 부처의 편에서 말한다면 소리가 없는 것이니 곧 하나이지만, 중생의 근기를 가지고 논한다면 여러 가지의 소리니 곧 하나가 아닌 것이다. 그러니 무슨 뜻으로 일음(一音)이니 원음(圓音)이니 말하는 것인가? 참으로 같은 때 같은 모임에서 다른

20) 지눌, 『화엄론절요(華嚴論節要)』(『보조전서』, 211쪽). “第一 後魏菩提留支 立一音敎 謂一切聖敎 唯是如來一圓音敎 但隨根異故. 經云「佛以一音演說法 衆生隨類各得解」.” 김호성은 “一圓音敎”를 “一音圓敎”로 잘못 인용하고 있음. 김호성, 앞의 글, 60쪽 각주 16 참조.

종류의 중생들이 똑 같이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근성에 따라서 각각 일음을 얻고 다른 소리는 듣지 아니하여 착란(錯亂)되지 아니하니, 이처럼 음의 기특(奇特)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음(一音)이라고 이르는 것이다. 음이十方(十方)에 두루하여 근기가 성숙한 정도에 따라 듣지 못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원음이라 이르는 것이지, 허공처럼 두루 가득차 별다른 운곡(韻曲)이 없는 것을 이르는 것은 아니다. 이는 마치 경에서 이르기를 ‘그 무리들의 음에 따라 중생에게 널리 일러준다’라고 한 것과 같으니,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다.”²¹⁾

원효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한 논사의 설명을 소개한다.²²⁾ “소리가 온곳[十方]에 두루하여 근기가 성숙한 정도에 따라 듣지 못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원음이라 이르는 것이지, 허공처럼 두루 가득차 별다른 운곡이 없는 것을 이르는 것은 아니다.” 원음은 온곳에 두루 두루 있는 소리다. 그러나 마치 비어서 그 빗이 두루두루 꼭 차있고 그래서 아무런 운곡, 즉 소리의 울림과 굽음이 없는 텅빔은 아니다. 듣는 사람의 내면의 성숙도[根機]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각각 다 들을 수 있는 소리다.

21) 원효, 『기신론해동소』(『한불전』 1, 703a). “此言圓音 卽是一音 一音圓音 其義云何 昔來諸師說者不同 有師說云 諸佛唯是第一義身 永絕萬像 無形無聲 直隨機現無量色聲 猶如空谷無聲 隨呼發響 然則就佛言之 無音是一 約機論之 衆音非一 何意說言一音圓音者 良由一時一會異類等解 隨其根性各得一音 不聞餘聲 不亂不錯 顯是音奇特 故名一音 音遍十方 隨機熟處無所不聞 故名圓音非謂如空遍滿無別韻曲 如經言隨其類音普告衆生 斯之謂也”; 은정희 역주,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별기』, 71-72쪽.

22) 이기영은 원효 자신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앞의 책, 91쪽 참조). 그리고 박휘근은 그의 『한국인의 존재지혜 II—「원효의 원음」과 한국인의 존재지혜』에서 원효가 원음에 주목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원효는 “원음(圓音)이 곧 일음(一音)”이라 한다. 언제나 어디에나 있는 둥근 소리가 어떻게 하나의 소리가 되는가? 모든 중생들이 자신들의 부름에 따라 울려 나와 듣는 그 메아리는 자신 소리의 메아리일 뿐이다. 그 각각의 메아리들은 하나의 소리가 아니다. 그런데 각각의 메아리들을 하나의 소리로 알아듣고 다른 소리는 듣지 않고 혼란 없이 각각 하나씩 알아듣기에 이런 특징으로 일음이라 한다. 그래서 중생의 측면에서, 부처님의 측면에서 각각 일음이라 풀이하고 이해하고 있으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부처님의 측면에서 하나의 소리는 소리 없음으로서 하나의 소리고, 중생의 측면에서 하나의 소리는 모든 중생들이 각각 알아듣는, 그러나 모든 소리들이 섞이거나 어지럽지 않게 하나로 알아듣는 일음이다. 원효의 설명은 중생의 측면에서도 부처님의 측면에서도 일음이라 하지만, 이 두 소리가 어떻게 하나의 소리인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부처님의 편에서 말하면, 부처님의 소리는 없다[無音]. 부처님은 제일의신(第一義身)으로 영원히 만상(萬像)을 여의어 어떤 모양이나 소리도 없다. 그래서 부처님의 소리는 무음이고 무음은 곧 일음이다. 부처님의 소리는 (어떤) 특정한 곡조가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일음인 것이다. 무음이 일음의 근거가 된다.

이를 빈 골짜기에 비유하면, 빈 골짜기 스스로는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지만, 부름에 따라 그 메아리가 울려 나오는 것과 같이 부처님은 어떤 소리를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거기 중생이 있으면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빈 골짜기는 그 메아리를 울려낸다. 스스로는 아무 소리가 없지만 중생의 근기에 따라 늘 한 소리를 낸다.

즉 부처님 말씀은 무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일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원효의 두 번째 세 번째 소개는 다음과 같다.

또 혹 어떤 이의 설한 것은, “부처님 편에서 말한다면 실로 형체와 소리가 있으며 그 소리가 원만하여 두루하지 않는 바가 없어서, 도무지 궁음(宮音)과 상음(商音)의 다름도 없거늘 어찌 평성(平聲)과 상성(上聲)의 다름이 있겠는가? 이처럼 다른 곡조가 없기 때문에 일음이라 이름하며, 두루하지 않는 바가 없기 때문에 원음(圓音)이라고 설하는 것이니, 다만 이 원음이 증상연(增上緣)이 되기 때문에 근기의 차별을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마치 보름달이 오직 하나의 원형(圓形)이지만 그릇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 그림자를 나타내는 것과 같으니, 여기서의 도리도 그와 같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는 또 『유마경』에서 이르기를, ‘부처가 일음으로 법을 연설하실 때에는 중생이 무리에 따라서 각각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과 같다.²³⁾

혹 어떤 이의 설한 것은, “여래가 실로 여러 가지 많은 음성이 있어서 일체 중생이 가진 언음(言音)이 여래의 법륜의 음성에 포섭되지 않는 것이 없으나, 다만 이 부처의 음성은 장애가 없어서 하나가 곧 일체이며 일체가 곧 하나이다. 일체가 곧 하나이기 때문에 일음(一音)이라고 이름하고, 하

23) 원효, 『기신론해동소』 (『한불전』 1, 703a-b). “或有說者 就佛言之 實有色聲 其音圓滿 無所不遍 都無宮商之異 何有平上之殊 無異曲故名爲一音 無不遍故說爲圓音 但由是圓音作增上緣 隨根差別現衆多聲 猶如滿月唯一圓形 隨器差別而現多影 當知此中道理亦爾 如經言佛以一音演說法 衆生隨類各得解故”; 은정희 역주, 『원효의 대승기신론 소·별기』, 72-73쪽.

나가 곧 일체이기 때문에 원음(圓音)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이는 『화엄경』에서 이르기를, ‘일체 중생의 말하는 법을 여래가 한 말로 연설하여 다 하여 남음이 없다. 모두 정밀(淨密)한 음을 알아듣게 하고자 하시니, 보살이 이로 인하여 처음 발심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과 같다. 또 이 불음(佛音)은 불가사의하니, 다만 일음(一音)의 말이 곧 일체음(一切音)일 뿐 아니라, 여러 법에도 똑 같이 두루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다.²⁴⁾

두 번째 논사의 설명은 형체와 소리가 꼭 차 있어 있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논사의 설명은 오히려 부처님은 많은 음성이 꼭 차 있고, 중생의 모든 음성이 여래의 음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장애가 없다. 하나가 곧 일체이고 일체가 곧 하나인 소리다. 일체가 곧 하나이기에 일음이고 하나가 곧 일체이기에 원음이라 한다. 이와 같은 설명은 『화엄경』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의 꼭 차 있는 소리가 일음과 원음의 근거가 된다.

원음이 듣는 사람의 내면의 성숙도에 따라 각각 알아듣도록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원음이 증상연(增上緣)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다른 소리가 생겨나는 것에 힘을 주고 도와주는 소리 그리고 다른 소리가 생겨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 다른 소리가 나타난다. 원음은 언제 어디서나 있는 소리이며 다른 모

24) 원효, 『기신론해동소』(『한불전』 1, 703b). “或有說者 如來實有衆多音聲 一切衆生所有言音 莫非如來法輪聲攝 但此佛音無障無礙 一即一切 一切即一切即一 故名一音 一即一切 故名圓音 如華嚴經言 一切衆生語言法 一言演說盡無餘 悉欲解了淨密音 菩薩因是初發心故 又此佛音不可思議 不但一音言即一切音 亦於諸法無不等遍”; 은정희 역주,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별기』, 73쪽.

든 소리들이 스스로 생겨나도록 도와주며 방해하지 않는 소리다. 마치 둥근달이 하늘에 하나 떠 있지만 저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함경도, 평안도, 제주도 등의 모든 강물, 저수지, 호수에 하나같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둥근달은 내 어린시절 시골 마을의 하늘에만 걸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걸려 있을 것이고 서울의 하늘에도 평양의 하늘에도 걸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둥근달은 언제 어디서나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고 또 볼 수 있다. 부처님의 말씀은 바로 언제 어디에나 있는 그런 두루한 소리 즉 원음(圓音)이다.

위의 세 논자들의 원음, 일음에 대한 설명을 원효가 인용해서,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의 일치하지 않는 설명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사색을 요구한다. 원(圓)에 대한 사색을 더 해서 원음을 사색하는 발걸음을 재촉해 보자. 앞에서 ‘언제 어디서나 두루한다’는 뜻으로 새긴 원(圓)을 ‘똑같고 두루함’으로 풀고 있고, 이 등편(等偏)이 무엇과 무엇에 똑같은지 원효는 여섯 쌍의 예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이제 우선 대략 여섯 쌍을 들어 그 똑같고 두루한 모양을 나타낼 것이다.

첫째는 일체 중생과 일체의 법에 똑같으며, 둘째는 시방의 모든 공간과 삼세(三世)의 모든 시간에 똑같으며, 셋째는 일체의 응신여래(應身如來)와 일체의 화신제불(化身諸佛)에 똑같으며, 넷째는 일체법계(一切法界)와 허공계(虛空界)에 똑 같으며, 다섯째는 무애상입계(無礙相入界)와 무량출생계(無量出生界)에 똑같으며, 여섯째는 일체행계(一切行界)와 적정열반계(寂靜涅槃界)에 똑같다.

이 뜻은 『화엄경』의 세 가지 무애(無礙) 중에서 설한 것과도 같다. 하나하나의 소리마다 이 여섯 쌍과 같으면서도 그 음운(音韻)이 항상 잡란(雜亂)하지 아니하니, 만약 음이 이 여섯 쌍에 두루 미치지 않는 바가 있다면 음이기는 하지만 원(圓)이 아니고, 만약 똑같고 두루하기 때문에 그 음의 곡조를 잃는다면 원(圓)이긴 하지만 음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제 곡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똑같고 두루미치며, 두루 미침을 변동시키지 않으면서 음운(音韻)이 차별되니, 이런 도리 때문에 비로소 원음(圓音)을 이루는 것이다. 이는 심식(心識)의 사랑(思量)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법신(法身)의 자재한 뜻으로써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음의 뜻을 대략 이와 같이 설하였다.²⁵⁾

우리가 똑같다는 말과 두루하다는 말을 하려면, 무엇과 무엇이 똑같은지, 어디 어디에 두루한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원효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 똑같고 두루함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므로 [圓], 없는 것[無]으로 말할 수 있고, 그 전체가 또 하나[一]로 말할 수 있으며, 또 그 전체로서의 하나는 모든 각각의 개체로서의 하나[衆이면서 一]와 또 다르지 않은 것이기에 같

25) 원효, 『기신론해동소』(『한불전』 1, 703b-c). “今日略舉六雙 顯其等遍之相 一者等於一切衆生及一切法 二者等於十方諸刹及三世諸劫 三者等於一切應身如來及一切化身諸佛 四者等於一切法界及虛空界 五者等於無礙相入界及無量出生界 六者等於一切行界及寂靜涅槃界 此義如華嚴經三種無礙中說 隨一聲此六雙 而其音韻恒不雜亂 若音於此六雙有所不遍 則音非圓 若由等遍失其音曲 則圓非音 然今不壞曲而等遍 不動遍而差韻 由是道理 方成圓音 此非心識思量所測 以是法身自在義故 一音之義略說如是”; 은정희 역주,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별기』, 74-76쪽.

은 하나[一]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설명을 통해, ‘(부처님의) 이 말은 말이면서 동시에 아무 말도 아닌 침묵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또 이 말을 하는 부처님 자신도 한 사람이면서 스스로 ‘아무도 아닌 (사람)’[無我]이다. 하지만 원음은 알아듣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원효 자신이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위 말을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고 또 동시에 얼마만큼 알아듣기 어려운가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원효는 『화엄경』의 인용을 통해서도 “이 불음은 불가사의(不可思議)하다”고 하며 그 자신도 “심식의 사랑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자신의 말로써 고백한다. 그 이유를 원효는 “진리의 몸이 스스로 있는 뜻 때문”이라고 한다.

하나하나의 소리가 앞의 여섯 쌍 모두에 있으면서도 섞이어 어지럽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여섯 쌍 모두에 두루 미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리[音]이지만 두루하지 않으므로 두루한 소리가 아니다. 그 소리가 똑같고 두루하지만 바로 두루하고 똑같은 때문에 그 곡조를 잃는다면 두루하지만 소리가 아니다. 원음은 이와 같이 곡조를 잃지 않으면서도 똑같고 두루 미치며, 똑같고 두루 미치면서도 그 곡조가 차별되는 소리다. 이와 같아서 불음(佛音)을 구체적 모양으로 그릴 수 있으면서도 그릴 수 없는 것이다. 또 일음(一音)이니 원음(圓音)이니 무음(無音)으로 설명하여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알아듣기 어렵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말로 최대한 알아들을 수 있는 사색을 해보자. 김호성이 말하는 해석자의 해석학적 상상력과 자유로움으로, 하지만 본래 뜻을 담으면서 오늘날의 우리가 쓰는 말로 오늘날 우리가 최대한 알아듣는 대기설법(對機說法)으로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자.

IV. ‘있음’의 소리

소리[音]란 무엇인가? 두루함[圓]은 무엇인가? 박휘근은 원음(圓音)을 한국말로 ‘둥근 소리’로 해석했다. 나는 원효가 설명하는 원음을 우리말로 ‘두루한 소리’로 풀어본다. ‘둥글다’는 것은 모양을 말할 때 ‘모나다’는 말에 대응되며 공과 같은 것을 말한다. 또 성격을 말할 때 원만한 성격을 말한다. ‘세상을 둥글게 산다’든가, ‘성격이 둥근 사람은 친구도 많다’든가 하는 말은 원만한 성격을 잘 나타내 준다. 공과 같은 둥근 모양은 잘 뒹굴어 여기저기 잘 굴러 갈 수 있는 특징이 있어 ‘두루하다’는 사태에 어울리는 면이 있다. 그렇지만 공은 경계가 있고 가가 있어 전체를 나타내지 못하는 면이 있다. 성격이 둥근 사람이나 세상을 둥글게 사는 사람도 늘 그 주체가 남아있어 한계가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방 삼세의 모든 곳에서 어느 때나 두루 어울려 사는 데까지 해석하기는 곤란하다. 원음의 똑같고 두루한 특성 가운데 일체 중생과 일체의 법에 똑같으며, 시방(十方)의 모든 공간과 삼세(三世)의 모든 시간에 똑같다는 등의 원효 설명에 맞추기는 부족하다.

원효가 설명하는 원(圓)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언제 어디서나 두루하다’는 말이다. ‘두루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두루’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빠짐없이 골고루’라는 의미다. 그래서 서로 서로 통하고, 서로 넘나드는 것이며, 널리 전체에 흐르는 모양이다. 전체

를 나타내는 뜻이며 ‘온’, ‘골고루’, ‘빈틈없이’ 등의 뜻을 담는다. ‘두루’는 사람의 숨씨나 재간, 성격, 사태 등을 나타낼 때에도 골고루 빈틈없이 정말 두루 두루 쓰인다.

‘온’도 또한 사태적으로 원음(圓音)의 원(圓)을 나타내기에 좋다. ‘온’은 ‘전부’ 또는 ‘모두’를 말하는 관형사이자, ‘꼭 찬’ ‘완전한’ ‘전부’의 뜻을 더해주는 접두사로도 쓰인다. 또 100을 나타내는 옛말이자, 경상도에서는 ‘원래’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갖추다’는 뜻도 있다. 장희익은 생명현상을 ‘온생명’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 ‘온’을 쓰고 있다. 그가 말하는 온생명은 생명현상을 유지해나갈 최소한의 여건을 구비한 전체체계다. 이 전체체계는 전체가 생성소멸을 하며 존속하고 그 가운데 높은 수준의 질서를 유지하며 창출한다. 그가 말하는 온생명에서의 ‘온’은 생명 ‘체계 전체’ 그리고 생명의 ‘본질’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²⁶⁾

원호에 따르면, 원(圓)은 똑같고 두루함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있으며, 그 전체를 하나로 말할 수 있으며, 그 전체로서의 하나는 모든 각각의 개체로서의 하나와도 다르지 않은 것이기에 같은 하나로 말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 원음(圓音)을 ‘온소리’ ‘두루한 소리’로 풀어본다. ‘온소리’는 전체소리여서 ‘흔소리[一音]’며 동시에 ‘없는 소리[無音]’다. ‘두루한 소리[圓音]’는 ‘한소리[一音]’며 동시에 ‘뭇소리[衆音]’다. 여기서 나는 한과 흔을 구분했다. 한에서 ‘아’와 흔에서 ‘으’를 구분하

26) 장희익, 「온생명과 함석헌 생명사상」, 씨름사상 연구회 월례발표회 2004년 11월 8일, <http://blog.naver.com/tnt62sik/120010183923> 참조; 장희익, 「‘온생명’과 생태학적 윤리」, <http://cafe.naver.com/practicalth/578> 참조.

여, ‘아’는 사람과 연결을 지어 구체적인 모양이 있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으’를 더 근원적인 모양이 없는 하늘과 연관된 것으로 본 것이다. 훈민정음의 모음 제자원리를 본따 생각한 것이다. 천(天 : ·)·지(地 : -)·인(人 : |)의 제자원리에 따라 다양한 모음이 만들어진 것에 착안하면, 이해가 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온’은 ‘흔[-]’과 ‘없는[無]’ 그리고 ‘두루함’은 ‘한’과 ‘못[衆]’에 대응해 보았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가능한 그 바탕이 ‘소리[音]’다. ‘소리’는 ‘두루함’ ‘온’ ‘흔’ ‘한’ ‘없음’ ‘못’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다.

소리는 목소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동시에 있음의 소리가 있다. 구성진 심청가의 소리, 국민의 소리로부터 봄의 소리, 화초의 타는 목마름의 소리 등 모든 있는 것들에는 소리가 있다. 모든 있는 것들에 소리가 있듯이, ‘있음’의 소리는 흔소리[一音]로 있다. 흔소리는 ‘있음’의 부름[the Calling of Being]이다.

흔소리로 있는 모든 것들이 각각의 제소리[一音]로 드러난다. 모든 있는 것들 각각의 제소리에 두루두루하는 두루한 소리[圓音]이자 온소리는 흔소리로서 모든 있는 것들 각각의 제소리, 즉 한소리[一音]에 관여한다.

그런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소리는 모든 있는 것들 각각의 제소리인 한소리다. 들을 수 있는 흔소리는 없다. 그래서 흔소리를 없는 소리라 하고, 소리없음[無音]으로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없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있는 소리인 제소리이자 한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들리는 소리에서 있는 그대로를 듣는 이다. 바로 있는 그대로를 듣는 순간, 거기 어떤 모양 없이 그 한소리[一音]를, 그 제소리를 듣는

다. 동시에 거기에 어떤 모양 없이 있는 그대로 들으므로 고요함[소리없음:無音]에 들어간다. 그 가운데 (전체로서의) 한소리[一音]가 있으며 온소리가 있어 동시에 소리 아닌 것이 없이 온갖 소리, 못소리[衆音]가 있는 그대로 참모습을 여여하게 드러낸다.

어느 완전한 봄날이었을 것이다. 법안종의 현사사비(玄沙師備, 834-908)의 법문이다. 요즘과 같은 완전한 봄날의 제비소리를 통해 위의 논의의 맛을 볼 수 있을까!

“어느 날 현사 스님은 대중에게 강론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마침 그가 법상에 올랐을 때, 밖에서 제비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실상(實相)에 관하여 이 얼마나 심오한 설법이며 법문인가!²⁷⁾

그리고는 그는 마치 자신의 설법이 모두 끝난 양 법상에서 내려왔다.”²⁸⁾

27) 『五燈會元』 七卷, 二十四, “深談實相, 善說法要, *The Golden Age of Zen*, 『禪學的黃金時代』, 『禪의 황금시대』에서 모두가 원문 “深談實相, ……” 중 “談” 자가 “資”로 잘못 되어 있음. 박정근, 『老子 『道德經』 研究(二)—마크 트웨인(Mark Twain),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그리고 老子』, 『인문학연구』 제4집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9), 62쪽 각주 28.

28) 吳經熊, 『禪學的黃金時代』, 李楠永·徐燮珏 옮김 (서울: 삼일당, 1978), 346쪽; 吳經熊, 『禪의 황금시대』, 류시화 옮김, 3판 (서울: 經書院, 1990) 3판, 248쪽 참조; John C. H. Wu, *The Golden Age of Zen*, Revised Edition (Taiwan: United Publishing Center, 1975), 230쪽 참조; 박정근, 앞의 글, 61-62쪽.

V. 나가는 말

원음(圓音)은 진제가 산스크리트 마하야나스라도트파다(Mahāyānaśraddhotpāda)를 『대승기신론』으로 550년 번역한 이후 한자문명권에서 한자로 불교를 이해한 한문문자시대의 한자식 표현이다. 그것을 원효가 깊이 숙고하며 진리의 소리로 이해하고 한문으로 그의 사색의 글을 남겼고, 이제 우리는 그 진리의 소리를 우리의 입말로 이해하고 입말과 일치하는 글말로 써 우리의 입말과 글말에서 우리 문화와 지혜 전통의 소리를 드러내고 밝혀 비추는 것이다. 우리 소리는 중요하며 우리 말은 중요하다. 우리 각자의 한소리는 훈소리의 부름으로부터 울려나오고 훈소리를 찾아가게 하는 관건이다. 그런데 영어몰입교육을 통해서 한소리가 제소리로 울려 나오나거나 훈소리를 찾아 가는 길을 막아 진리의 소리, 있음의 소리인 온소리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 우리 말을 아끼고 깊이고 넓히고 높이는 것은 우리 지혜 전통을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더하고 그래서 한국말의 힘을 키우는 데 보탬이 되는 길이다.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근원의 소리요, 온소리요, 한소리요, 없는 소리다. 그러나 현사 사비의 제비소리에도 있으며, 밤늦게 취객을 태워주며 힘겹게 하루하루 일하며 살아가는 택시기사의 표정에도 있으며, 수업시간에 하기 싫은 공부에 무기력감을 느끼며 자고 있는 학생의 모습에도 있으며, 어디에나 두루 있는 소리요, 못소리다. 이런 모든 소리가 원음이다.

또한 한국 사람에게겐 한국말이 또한 곧 원음이다. 한국 사람에게 가장 근원적으로 사색하고 느끼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구나 체 뜻을 가

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한국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이 한국어로 사색하고 말할 때 진리에 가까울 수 있으며, 흉내냄이 아닌 근원의 소리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본다.

현 정권의 국민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행하는 영어몰입교육의 비전과 정책은 진정 국민을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전 국민의 영어 사용이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까? 오히려 영어를 배울 노력과 시간으로 그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한국 말로 자신들의 느낌과 정서로 그들의 고유한 학문이론을 만들어내고, 영어 통·번역 전문가가 번역하고 소개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그들 자신들의 고유한 정서를 그들 자신의 말로 자유롭게 말하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쓰지도 못하면서 그들의 괴로움을 얼마나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진리는 부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또한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든 태어나지 않으셨든 진리는 늘 열려있는 것이다. 중생들의 마음 속에서 늘 울리고 있는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들의 내면에서 울려 나오는 괴로운 소리와 즐거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들을 편안하게 해줄 진리의 소리도 함께 알아들을 것이다.

주제어

본래 소리/근원의 소리(원음原音, Original sound), 둥근 소리(Round sound)/

두루한 소리 (*Duruhan* sound)/온소리 (*On* sound) (원음圓音), 한소리/흔소리 (일음一音, *One* sound/*Han* sound), 없는 소리 (무음無音, Absolute soundless sound), 뭇소리 (중음衆音, All sound/*Moot* sound).

A Study on Woneum(圓音) by Wonhyo(元曉)

Kim, Won-Myoung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is to try understanding Woneum (圓音), the Round sound by Wonhyo(元曉). To increase our understanding Woneum, this study aims at interpreting Woneum as various modern Korean terms which represent the Korean speaker's freedom of imagination and opportunity to manifest one's own oneself.

Woneum is found once in the *Awakening of Faith (Mahāyānaśraddhotpāda)* translated into Chinese by Paramārtha (499-569) in 550 A.D. Wonhyo had studied Woneum in his *Commentary on Awakening of Faith (起信論海東疏)*. Woneum is not found, One sound is found in the *Awakening of Faith* translated into Chinese by Siksānanda (實叉難陀, 652-710), who began his work on the eighth of October, 700 A.D.

Round sound is interpreted as One sound, Absolute soundless sound and All sound by Wonhyo. Buddha had talked about truth in Round sound, all sentient beings heard the truth in One sound each other according to their abilities to hear that. In the part of Buddha, One sound can be interpreted in *On* sound in Korean, Absolute soundless sound. In the part of sentient beings, One sound can be interpreted in All sound. In the two parts of Buddha and sentient beings, One sound can be interpreted in *Duruhan* sound in Korean.

The English immersion education itself of present political power prohibits the Korean speaker's freedom of imagination and opportunity to manifest one's own oneself. Korean of Korean speakers is a calling of Being, *On* sound and *Duruhan* sound in Korean.

www.kci.go.kr